**ISSUE PAPER** 

무휴관·교차휴관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 문화관광시설 관람시간 확대 필요

### **CONTENTS**

### 01 서울시민 문화예술 관람률·참여율 증가 추세

1\_시민 문화관광 욕구 커지고 여가 트렌드도 변화 2\_서울시·정부도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위해 노력 중

# 02 국내외 유명 문화시설 중 다수, 무휴관제 시행

1\_해외: 주요도시 박물관·미술관 다수 무휴관으로 운영 2\_국내: 국립문화시설 46곳 중 10곳이 무휴관제 시행

## 03 서울시·자치구 문화관광시설, 관람시간 확대 필요

1\_문화관광시설 대부분 정기휴관···운영시간도 제한적 2\_시민생활 변화·뉴노멀에 맞게 관람시간 변화 바람직

### 04 무휴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시간 확대 가능

1\_관람시간 개편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종합적 감안 2\_인력·재정 부담 줄이는 관람시간 확대방법도 기획

# 요약

### 시민 문화관광 욕구가 커지면서 정부·서울시, 관련 정책 강화 중

문화 여가활동 비중과 참여 의사, 문화적 욕구 충족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활동 관람 시간도 주말 낮이나 주말 저녁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민 들의 문화활동도 전체 여가활동에서 비중은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을 시행하여 여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서울 시도 시민들에게 문화환경의 균등한 제공, 문화행복도 개선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해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 시민생활관광 기반구축 여건조성의 필요성 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문화와 관광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 문화관광시설 무휴관제 취지는 수익성 창출·문화향유 기회 확대

해외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휴관제 운영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무휴관제는 유물 또는 전 시품의 관리, 인력관리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기관의 운영 목적에 맞추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시행한 국립박물관들의 무휴관제는 국민문화향유권확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인력과 운영비 지원이 있었다. 무휴관제 도입에 따른 관람객 증감은 국립시설 간에도 차이가 있지만 휴관일이었던 날의 관람객이늘어났기에 약간의 증가는 있었다. 문화재청에서 수행 중인 궁궐의 부분 야간개장은 인기가 높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문화관광시설, 관람객지향적 관리·시간접근성 개선 병행할 필요

서울시 대표적 문화시설 중 무휴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은 전무하다. 일부 야간운영을 시도했지만 '월요일 휴관, 9시~18시' 운영시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인프라들이 관광객 이동 패턴을 고려하여 운영되듯, 시민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관리자 중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나 방문객 중심으로 운영시간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약제 확대는 관람시설의 전체 운영시간 확대와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휴관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총량관리 등으로 수요에 근거한 운영시간 조정과 적정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관리 문제의 어려움은 일부 공간에 한정한 개방이나 계절과 시간에 따른 탄력운영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운영주체가 같은 곳은 교차휴관제를 도입하거나학생들이나 소규모 단체로만 한정하여 휴관일에 받는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 01 서울시민 문화예술 관람률·참여율 증가 추세

# 1\_시민 문화관광 욕구 커지고 여가 트렌드도 변화

## 문화예술 관람률·참여율 증가 추세는 국민 여가·문화통계에서 확인 가능

국민들의 여가활동 중 문화관련 활동의 비중은 저조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 년 국민들의 유형별 참여 여가활동<sup>1</sup>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식이 57%, 취미오락 활동이 26.9%, 스포츠참여활동이 5.5% 문화예술 참여활동이 0.9%,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0.4%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81.5%, 2019년에는 81.8%로 조사되었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다.<sup>2</sup> 문화예술 행사별 참여의향은 '영화' 관람이 8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대중음악/연예'(30.0%), '뮤지컬'(23.2%), '연극'(21.0%), 미술전시회(15.6%) 순으로 높았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2010년 4.2회에서 2019년 6.3회로 증가했고, 참여율도 2.2%(2010년)에서 10.4%(2019년)로 높아졌다. 참여의향도 3.7%(2010년)에서 19.2%(2019년)로 증가했다([그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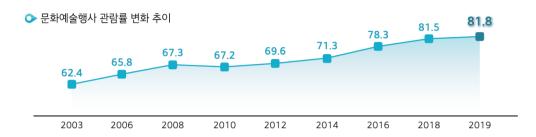
자료: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2003~2019년)

문화관람 중에서는 영화 관람이 가장 많으며, 주요 관람 시간은 주말 낮(45.1%)과 주말 저녁 (27.9%)이 높았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영화(77%), 대중음악/연예(23.3%)가 높았으며, 그다음이 연극 14.9%, 미술전시회 13.5%, 뮤지컬 13.5% 순이었다. 관람 시간은 '주말 낮 (45.1%)', '주말 저녁(27.9%)', '주중 저녁(16.0%)', '주중 낮(10.7%)'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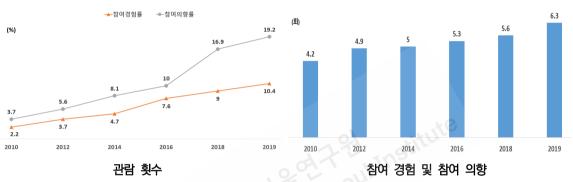
<sup>1 2019</sup> 국민여가활동조사: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10,000명 대상으로 조사(2019.9.9.~11.14.)

<sup>2 2019</sup>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10,102명을 대상 조사(2019.9.9.~11.14.)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2003~2019년)



자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3] 문화예술활동 관람횟수 및 참여율

## 서울시민 문화예술 관람비중은 2018년 10% …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서울시민의 전체 여가활동에서 문화관련 활동 비중은 10%로 크지 않지만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서울서베이, 2012~2018년). 2018년 서울시민의 휴일 참여 여가활동으로 TV/비디오 시청이 29.5%로 높았으며, 문화예술 관람은 10%였다.



[그림 4] 서울시민 휴일 여가활동 참여율 2012~2018년(서울서베이)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연간 참여 횟수(2018년)는 영화관람이 2.83회로 가장 많지만, 2016년 (3.60회) 이후 감소세이다. 전시회 관람은 0.27회, 박물관 관람은 0.33회, 전통예술공연, 음악·무용발표회는 각각 0.07회 정도로 평균치가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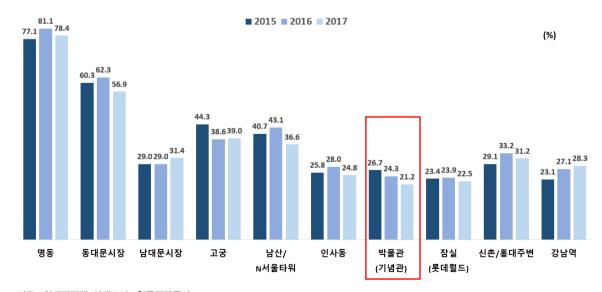
[표 1] 서울시민 문화활동 연간 방문횟수 통계

여가 관람 활동	2012	2014	2016	2018
전시회 관람	0.15	0.20	0.33	0.27
박물관 관람	0.19	0.22	0.41	0.33
음악과 무용발표회 관람	0.09	0.09	0.16	0.07
전통예술공연 관람	0.28	0.10	0.39	0.07
연극공연 관람	0.31	0.33	0.60	0.34
극장에서 영화관람	2.41	2.56	3.60	2.83
대중공연 관람	0.12	0.14	0.22	0.11
스포츠경기 관람	0.28	0.25	0.58	0.31

자료: 서울서베이(서울특별시)

## 2017년 기준 서울시 외래관광객 약 39%는 고궁, 약 21%는 박물관 방문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관광 행태 중 외래관광객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명동·남대문·북창동이 88.2%이며, 박물관이나 고궁 방문객은 다소 감소세이다. 외래관광객은 명동, 동대문시장, 남산·N서울타워, 고궁 순으로 방문율이 높았다(2015~2017년). 박물관은 2015년 26.7%에서 2017년 21.2%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고궁은 2015년 44.3%에서 2017년 39.0%로 다소 줄었다.



자료: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그림 5] 서울의 주요 관광지(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2\_서울시·정부도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위해 노력 중

### 정부, '휴관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등 국민문화향유권확대사업 시행

정부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문화향유권확대사업」을 시행하였다.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국공립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다.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은 문체부소속 국립문화시설인 국립중앙박물관(소속관 포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개장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공립문화시설 개관 시간 연장'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2004년 7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여가시간과 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립문화시설의 야간개장과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박물관·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관람 편의 제공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야간개장을 시작하여 오후 9시까지 연장 개관을 하였다. 이듬해 지방의 국립박물관으로 확대되어 주 1회 내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야간개장을하였다. 이후에 문화시설 야간개장 서비스 대상이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시민들의 야간관람 이용 기회도 늘어났다.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은 일부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내·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주 7일 개관하며, 1월 1일, 설날, 추석에만 정기휴관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추가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면서 시행되었고, 일자리 창출 확대 효과와 방한 외래관광객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후 무휴관제는 2017년 1월 1일부터 8개 국립박물관·미술관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대상 시설은 국립중앙박물관(용산, 전주, 경주, 광주),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광화문), 국립민속박물관이다. 그외 '국공립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생활기반의 도서관, 박물관의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예술공동체와 협력해 지역민의 지속적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도서관·미술관·박물관에서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이나 공연·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울시도 문화적 환경 조성·시민 문화행복도 개선 목적 다양한 사업 추진

서울시도 문화적 환경 조성과 시민의 문화행복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표적으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2016년)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문화를 중시하는 개인의 삶,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자치구 기반의 생활권 단위로 전환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지역을 삶이 있는 일상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역별 시립미술관 및 어린이미술관 건립,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조성,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자산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신설된 박물관 진흥과를 중심으로 13개의 뮤지엄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새 시설들을 운영할 산하기관들을 지정하였다. 2016년 3월 전담조직인 문화시설사업추진단 직제도 통과하면서 확대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남준기념관(2017년), 돈의문전시관(2018년), 봉제역사박물관(2018년), 서울우리소리박물관(2019년) 등은 이미 개관한 상태다. 「서울관광중장기발전계획」수립(2019년)에서서울 시민 생활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정책의 대상 확대, 시민 관광향유권 보장 등의방법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여행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 중 '시민 생활관광 기반 구축'과제에는 서울시민의 관광항유권 증진, 시민 문화·관광복지 증진, 시민 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담겨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화, 내국인 생활관광 실태조사 추진('19년~), 생활관광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19년~) 등이 대표적이다.

# 02 국내외 유명 문화시설 중 다수, 무휴관제 시행

# 1\_해외: 주요도시 박물관·미술관 다수 무휴관으로 운영

### 해외 박물관의 무휴관 운영 목적은 문화관람 향유 기회 확대·수익성 창출

해외 문화관광시설 중 루브르박물관처럼 휴관제로 운영되는 예도 있지만, 이미 무휴관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형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관광객에게 관람의 접근성 확대와 편의성 제고로 문화관람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무휴관 운영이 논의되었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익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휴관제를 도입하고 더 많은 관람객 입장을 유도하여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도 컸다.

뉴욕, 도쿄, 런던, 타이페이 등 해외 주요도시들의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뿐만 아니라 시립단 위의 시설도 무휴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1971년부터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였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무휴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런던의 대영박물관은 본관과 분관인 클로이스터스 미술관과 정원을 무휴관으로 운영하는데, 개장시간은 9시반에서 10시로 변경하였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은 화요일이 정기휴관일이지만, 여름(7~8월)에는 무휴관으로 운영(금·토는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런던에서는 대영박물관, 국립미술관,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무휴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휴관일은 1월 1일, 12월 24~26일뿐이다.

파리 루브르박물관은 화요일에 정기 휴관을 하며, 교육 차원에서 학교 견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화요일 운영을 논의(2015)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 베르사유 궁전 등 무휴관제 운영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개관시간은 오전 10시이고, 평일, 일요일, 연말의 폐관시간이 다르다. 평일은 저녁 8시, 일요일 7시, 연말(12/24~31)은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하며, 휴관일은 1월 1일, 5월 1일, 12월 25일이다. 타이완 타이페이의 고궁박물관은 본관이 8시반에서 18시 반까지 무휴관으로 운영하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21시까지 연장한다. 일부 시설들은 월요일에 휴관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무휴관 운영이들고 있는 것은 하나의 추세이다.

[표 2]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일

도시(나라)	시설명	통상 관람·운영 시간	휴관일
런던	대영박물관	• 토~목: 10:00~17:30 • 금: 10:00~20:30	<ul> <li>본관과 분관인 클로이스터스 미술관과 정원을 무휴관으로 운영</li> <li>휴관일: 1/1, 12/24~26</li> </ul>
(영국)	국립미술관	• 토~목: 10:00~18:00 • 금: 10:00~21:00	• 휴관일: 1/1, 12/24~26
	테이트 모던 미술관	• 일~목: 10:00~18:00 • 금,토: 10:00~20:00	• 휴관일: 12/24~26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일~목: 10:00~17:30 • 금,토 : 10:00~21:00	<ul> <li>2013년 7월 1일부터 무휴관 제 시행</li> <li>휴관일: 추수감사절, 크리 스마스, 5월 첫 주 월요일</li> </ul>
(미국)	자연사박물관	• 10:00~17:45	• 휴관일: 추수감사절, 크리스 마스
	휘트니 미술관	<ul><li>평일: 10:30~18:00</li><li>금,토: 10:30~22:00</li></ul>	<ul><li>매주 화요일이 정기휴관일</li><li>여름(7~8월) 무휴관</li></ul>
파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ul><li>월,목,토,일: 9:00~18:00</li><li>수,금: 9:00~21:45</li></ul>	• 매주 화요일 • 1/1, 5/1, 12/25
타이페이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 일~목: 8:30~18:30 • 금,토 : 8:30~21:00	• 본관 무휴관 운영 • 일부 시설 월요일 휴관
마드리드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 월~토: 10:00~20:00 • 일: 10:00~19:00 • 12/24~31: 10:00~14:00	• 휴관일: 1/1, 5/1, 12/25

# 2 국내: 국립문화시설 46곳 중 10곳이 무휴관제 시행

### 문화관광시설 중 일부에 해당 ··· 시·도 단위 국립문화시설은 대개 정기휴관

이 연구는 국내 문화기반시설 총람 조사를 바탕으로 무휴관으로 운영되는 시설과 운영의실태를 알아보았다. 국내의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중에서 국립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은전국에 46곳이며, 서울에 16곳, 광역시에 6곳, 시·도에 24곳이 있다. 문화시설의 통상적인관람 및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은 오전 9시 반 또는 10시에 개관하고, 오후 6시에 폐관한다.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이다. 서울과 광역시 소재의 국립문화시설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도단위의 국립문화시설은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지 않으며, 월요일이나 일요일에 정기휴관을 하고 있다.

[표 3] 국립문화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일

소재지	문화시설 수	무휴관시설 수	통상 관람·운영시간
서울	16곳 (박물관 14, 미술관 2)	7곳	<ul> <li>오전 9시 30분(10시)~오후 6시</li> <li>월요일 휴관</li> <li>수요일, 토요일 오후 9시 연장 운영</li> </ul>
광역시/특별 자치	6곳	2곳	<ul> <li>오전 9시 30분(10시)~오후 6시</li> <li>월요일 또는 일요일 휴관</li> <li>수요일, 토요일 오후 9시 연장 운영</li> </ul>
시·도	24곳	1곳	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 또는 일요일 휴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일부 국립문화시설이 매주 월요일 휴관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무휴관제가 시행되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휴관 운영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내·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주 7일 개관하고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만 정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무휴관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국립박물관·미술관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용산, 전주, 경주, 광주),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덕수궁),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광화문),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총 10곳이 무후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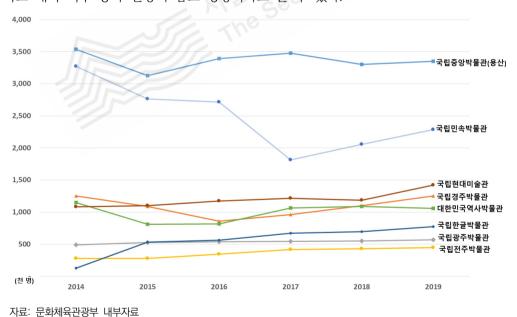
[표 4] 무휴관 국립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구분	시설명	무휴관 도입시기	운영시간	소재지
	국립중앙박물관	2016.10.1.	• 평일: 10:00~18:00 • 공휴일: 10:00~19:00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6.10.1.	• 9:00~18:00	서울
·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2017.1.1.	<ul><li>평일: 10:00~18:00</li><li>공휴일: 10:00~19:00</li></ul>	전주
	국립경주박물관	2017.1.1.	• 평일: 10:00~18:00 • 공휴일: 10:00~19:00	경주
	국립광주박물관	2017.1.1.	• 평일: 10:00~18:00 • 공휴일: 10:00~19:00	광주
	국립한글박물관	2017.1.1.	• 10:00~18:00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1.1.	• 10:00~18:00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7.1.1	• 평일: 9:00~18:00 • 공휴일: 9:00~19:00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016.10.1.	• 월-목, 일: 10:00~18:00 • 금,토: 10:00~21:00	서울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2017.1.1	<ul><li>화, 목, 금, 일: 10:00~19:00</li><li>수,토: 10:00~21:00</li></ul>	서울

무휴관 문화시설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였다. 이는 박물관 근무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시품의 교체 및 유지관리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개방시간(오전 9시)을 고려하여 오전 9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 국립문화시설은 무휴관 시행 8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은 폐장 시간을 1~2시간 연장하고, 문화가 있는수요일에는 폐장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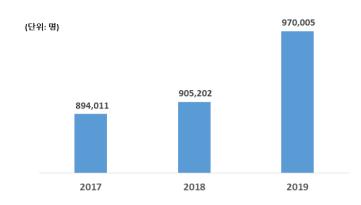
### 무휴관제 시행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등 8곳, 무휴관일 이용객 매년 늘어

이 연구는 무휴관제를 도입한 2016년을 전후하여 해당시설별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이용객 수 증감 변화, 무휴관일 이용객 증감 변화 등은 시설마다 다르며, 무휴관제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2016년 10월 이후 무휴관 운영시설 8곳의 이용객수는 연도별로 증감세가 상이하다. 국립중앙박물관(용산)은 매년 3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고, 2017년 방문객(3,476,606명)이 가장 많았지만 이후 주춤한 추세이다.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은 2015년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경주박물관은 2016년까지 이용객이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17년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무휴관 문화시설의 이용객 변화(2014~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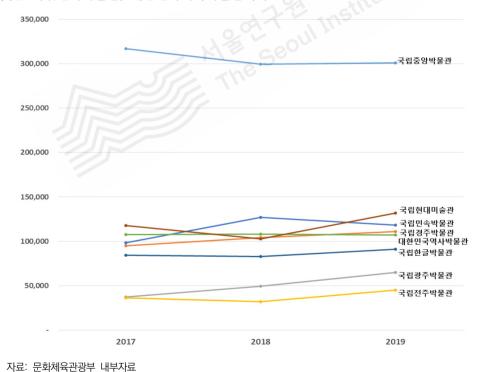
하지만 기존 무휴관일의 이용객 수는 시행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무휴관제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무휴관제 시행 이후, 시설 8곳의 기존 휴관일(월 또는 화)에 방문한 총이용객 수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 894,011명, 2018년에 905,202명, 2019년에 970,005명이 방문하였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7] 무휴관제 시행 후 기존 휴관일의 이용객 변화(2017~2019년)

무휴관일에 각 시설을 이용한 방문객 수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이용객 수가 증가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이다. 2018년보다 2019년 이용객 수가 감소한 곳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다.



[그림 8] 무휴관제 시행 후 시설별 기존 휴관일의 이용객 변화(2017~2019년)

# 경복궁·창덕궁 야간특별관람은 인기 많아 운영횟수 늘리고 관람인원 증원

문화관광시설 중 궁궐은 내·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자 문화시설이며, 문화재청은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였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문화 수요와 관심 증가를 반영하여 2015년 8월부터 경복궁·창경궁 등 야간 특별관람을 시작하였다. 연중 야간개장

일수를 정하고 사전예매로 1일 입장객을 제한하지만, 인기가 많아 야간관람 개장일과 1일 이용객을 늘리고 있다. 초기에는 연 4회 48일간 야간개장을 하였고, 정기휴관일에는 휴관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관람 이용객과 수요의 증가로 2016년에는 연 4회 120일로 확대 시행하고, 1일 최대 관람인원도 늘렸다.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의 관람일 수는 2016년에 견주어 2017년에 2배 이상 확대하였다. 경복궁은 15일에서 45일로, 창덕궁은 49일에서 92일로 야간특별관람일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2018년에는 별빛야행 외국인 관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 3회 시범운영을 하면서 관람 대상을 다변화하였다. 문화재청은 2019년 현재 경복궁 야간특별관람을 4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월 마지막 2주간 진행하면서 1일 참여 인원을 외국인 500명도 포함하여 최대 4,500명까지 확대하는 등 야간에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다.

[표 5] 고궁 야간특별관람 횟수 변화

프로그램명	2016년	2017년	2018년
경복궁 별빛야행	15일	45일	70일
창덕궁 달빛기행	49일	92일	95일

### 350일 이상 운영되는 문화관광시설은 전국에 199곳 … 사립시설이 더 많아

문화기반시설총람(2019)을 토대로 문화관광시설의 연간 운영일 수가 350일 이상으로 나타난 곳을 조사하였다. 350일 이상 운영되는 곳은 정기휴관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일 확률이 높고 무휴관으로 운영된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조사 결과, 350일 이상 운영되는 무휴관문화시설은 총 199곳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공립시설보다 사립시설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에 연중무휴시설이 가장 많았는데, 공립박물관 9곳, 사립시설 47곳(박물관 40곳, 미술관 7곳) 등 총 56곳이 무휴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설을 무휴관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강원도이며, 공립시설 14곳(박물관 14곳)과 사립시설 17곳(박물관 13곳, 미술관 4곳) 등 총 총 31개 시설이 무휴관으로 운영되었다. 전남은 20곳으로 국립박물관 2개소와 공립시설 11곳(박물관 10곳, 미술관 1곳), 사립 9곳(박물관 3곳, 미술관 6곳)이 무휴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무휴관으로 운영되는 공립문화시설은 강원·제주에 많고 서울엔 1곳도 없어

서울 소재의 박물관과 미술관(국립, 사립, 공립 포함)은 총 142곳(박물관 100곳, 미술관 42 곳)이 있는데, 이 중 서울 소재의 공립 문화시설 중 350일 이상 운영되는 곳은 전무하다. 서울 소재 박물관·미술관 중 350일 이상 운영되는 곳은 총 18개소이지만 이 중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서울 소재 박물관 중 국립으로 운영되는 5곳과 사립으로 운영되는 7곳이 무휴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 소재 미술관 중에서는 국립은 1곳, 사립은 5곳이 무휴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무휴관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은 주로

운영 주체가 국립과 사립이며,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국립이 아닌, 결정권이 운영자에게 있는 사립시설을 제외하고 시·도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립시설의 운영 실태는 다소 다르다. 서울이나 부산, 광주, 대전 등과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보다 도단위 지자체에서 무휴관제 도입률이 높은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립시설 수에서만 보면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많았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주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는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이며, 제주도는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물관과 미술관, 관광시설의 관람시간 운영 조정은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으며 실무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강원도 및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도 다수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을 열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6] 연중 350일 이상 운영하는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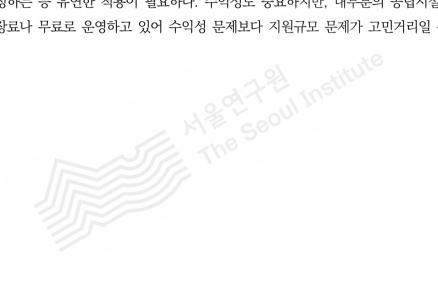
TIM		박물관			미술관		중계
지역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o. 사립	총계
합계 (*비율%)	10 (20.0)	65 (17.8)	88 (24.2)	1 (25.0)	2 (2.8)	33 (15.9)	199 (18.7)
서울	5 (35.7%)	-	7 (10.0)	1 (50.0)	_	5 (14.3)	18 (12.7)
부산	_	-	1 (16.7)	50_	_	_	1 (4.0)
인천		1 (6.7)	1 (8.3)	_	_	_	2 (6.3)
광주	1 (50.0)	_	_	_	_	2 (25.0)	3 (15.7)
대전		_	1 (25.0)	_	_	_	1 (7.7)
세종	_	1 (50.0)	1 (25.0)	_	_	_	2 (28.6)
경기	1 (20.0)	6 (12.0)	6 (8.5)	_	_	4 (11.1)	17 (10.4)
강원	_	14 (29.8)	13 (32.5)	_	_	4 (28.6)	31 (28.7)
충북	_	3 (12.5)	2 (15.4)	_	_	1 (16.7)	6 (11.8)
충남	_	8 (29.6)	1 (5.9)	_	_	3 (42.9)	12 (20.0)
전북	2 (50.0)	2 (8.3)	1 (11.1)	_	_	1 (11.1)	6 (11.3)
전남	_	10 (27.8)	3 (17.6)	_	1	6 (25.0)	20 (23.0)
경북	1 (33.3)	10 (27.8)	5 (26.3)	_	1	_	17 (25.0)
경남	_	1 (2.4)	6 (28.6)	_	_	_	7 (9.5)
제주	_	9 (60.0)	40 (78.4)	_	_	7 (50.0)	56 (63.6)

자료: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9, 문화체육관광부

\*비율: 시·도별 해당시설 전체 대비 350일 이상 운영시설의 비율

제주도의 공립 및 사립문화시설 중 56개가 연중 350일 이상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중에는 감귤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항일기념관, 항몽유적지 등이 350일 이상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사립운영시설 중 '박물관은 살아있다', '제주유리의성', '제주테디베어뮤지엄', '제주공룡랜드', '제주민속촌', '피규어뮤지엄', '초콜릿박물관' 등은 365일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의 공립 및 사립문화시설 중 41개가 연중 350일 이상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강릉시는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관람시설들이 무휴관제를 채택하고 있다. '강릉커피박물관', '강릉선교장박물관', '에디슨과학박물관', '피토키오박물관', '하슬라미술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박물관들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무휴관제 시행은 인력 및 기타 지원들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야하기 때문에 인력의 수용방식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시설 운영의 최종 목표에따라 운영도 달라져야 한다. 관광객 유치 혹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라면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공립시설은 저렴한입장료나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성 문제보다 지원규모 문제가 고민거리일 수도 있다.



# 03 서울시·자치구 문화관광시설, 관람시간 확대 필요

# 1\_문화관광시설 대부분 정기휴관 … 운영시간도 제한적

### 서울 소재 주요 문화관광시설은 총 381곳 … 지자체 운영이 166곳 '1위'

서울 소재의 주요 문화관광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은 총 381곳(문화기반시설 총람)이 있다. 국립시설은 18곳, 지자체 시설이 166곳, 공립시설이 43곳, 사립시설이 111곳, 대학 시설은 33곳이다. 평일 관람 시간은 오전 9~10시 개장, 오후 6~7시경 폐장하여, 정기휴관일은 주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다.

[표 7] 서울 소재 문화시설의 운영 주체별 시설 수

시설		총계			
국립도서관	국회1	중앙 1	-	<b>-</b> ·	2
공공도서관	<del>-</del>	사립 6	지자체 145	교육청 22	183
박물관	국립 14	공립 16	사립 70	서울대학 28	128
미술관	국립 2	공립 5	사립 35	서울대학 5	47
문예회관	_		지자체 21	<b>-</b> ·	21

자료: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9,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소재 주요 문화관람 및 문화재 등의 관광지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시 산하기관과 지자체 관할 시설의 대부분은 정기 휴관제를 시행하며 주로 월요일 휴관을 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서울함상공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 '남산골 한옥마을' 등이 있다. 평일 관람시간은 오전 9~10시 개장, 저녁 6시 폐장하며, 하절기와 금·토요일은 저녁 8~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문화재청 소관인 5대 궁(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과 종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휴관한다(경희궁 제외). 5대 궁은 외래관광객의 주요 방문지 중 하나며, 덕수궁 앞 수문장교대식이나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은 관광객이나 행인의 발을 멈추게 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휴관하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미리 숙지하지 않고 간다면 관람을 못할 수도 있다. 연중무휴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내부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문제로 연중무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일회성이나 행사 진행 시 미개방시설을 개방하거나 일부 문화시설의 야간개장을 하는 등 점차 개방 횟수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조사 결과, 서울시 자치구 운영 문화관광시설은 대부분 월요일에 휴관

이 연구는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관광지 중인지도와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52곳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로 선정하고 관람 시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표시설에는 박물관과 전시관이 30곳으로 가장 많고, 미술관 10곳과 관광지 12곳이 포함되었다. 이 중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전시관 17곳과 미술관6곳, 관광지 11곳이 포함되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박물관·전시관 13곳과 미술관4곳, 관광지 2곳이 포함되었다.

[표 8] 서울 소재 공립(서울시, 자치구) 문화관광시설 선정 현황

구분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관광지
서울시 산하기관	17	6	10
자치구	13	4	2
 총계	30	10	13

자료: 문화시설 총람과 서울시 주요 운영시설 등을 기준으로 선정

서울시 산하의 문화관광시설의 평일 개관시간은 오전 9시~10시 사이이며, 폐관시간은 오후 6~7시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은 평일에 다른 시설에 비해 1시간가량 늦은 저녁 8시에 폐관하는 반면, 주말에는 오후 6~7시로 평일보다 1시간가량 일찍 폐관한다.

[표 9] 서울 소재 문화관광시설의 지역별 운영 현황

구분	서울시	자치구	총계	구분	서울시	자치구	총계
종로구	10	1	11	마포구	1	2	3
중구	4	1	5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5	5
성동구	2	1	3	구로구			
광진구		2	2	금천구			
동대문구		1	1	영등포구	1		1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3	3	관악구	1	2	3
강북구		1	1	서초구			
도봉구		1	1	강남구			
노원구	2	3	5	송파구	2		2
은평구	1	2	3	강동구		1	1
서대문구		2	2	과천(서울 대공원)	1		1
	총계					29	53

자료: 문화시설 총람과 서울시 주요 운영시설 등을 기준으로 선정

[표 10] 서울시 산하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현황

운영기관	시설명	평일 개관시간	토/일/공휴일 관람시간	휴관일
	서울역사박물관	9:00~20:00	(3~10월) 9:00~19:00 (11~2월) 9:00~18:00	
	 경교장	09:00	월, 1월1일	
	 경희궁	(3~10월)09:00~19:00 (11~2월)09:00~18:00		월, 1월1일
	청계천박물관	09:00~19:00	09:00~19:00 (동절기 09:00~18:00)	
서울 역사	동대문역사관·운동장 기념관	10:00~19:00		월, 1월1일
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09:00~19:00	(3~10월)09:00~19:00 (11~2월)09:00~18:00	
	백인제 가옥	09:00~18:00		월
	돈의문전시관	10:00~19:00	하절기 금,토 10:00~20:00	월
	공평도시유적전시관	09:00~18:00		월, 1월1일
	서울생활사박물관	09:00~19:00	(3~10월)09:00~19:00 (11~2월)09:00~18:00	월, 1월1일
	서울시립미술관	10:00~20:00	(3-10월)10:00~19:00 (11-2월)10:00~18:00	k C
	남서울미술관	10:00~20:00	(3-10월)10:00~19:00 (11-2월)10:00~18:00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09:00~18:00	휴관	토, 일, 1월1일, 설, 추석
서울	북서울 미술관	10:00~20:00	(3-10월)10:00~19:00 (11-2월)10:00~18:00	
시립	SeMA창고	11:00~19:00	11:00~19:00	임시휴관
미술관	SeMA벙커	11:00~19:00	11:00~19:00	임시휴관
İ	백남준기념관	10:00~19:00	10:00~20:00	임시휴관
	한성백제박물관	09:00~21:00	09:00~19:00	
	몽촌역사관	09:00	~18:00	월, 1월1일
	서울공예박물관		 미개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월, 1월1일, 설, 추석
	수도박물관	(3~10월)10:00~20:00 (11월~2월)10:00~19: 00	(3~10월)10:00~19:00 (11~2월)10:00~18:00	월, 1월1일, 설, 추석
	서울도시건축전시관	09:00~21:00	무료	월
	군기시유적전시실	(11~2월) 0	9:00~20:00, (3~11월) 09	9:00~21:00
	남산골한옥마을		~21:00	월
	서울함상공원	(3~10월)1	0:00~20:00, (11~2월)10:	:00~18:00
	서울식물원	09:30~17:00	연중무휴	월: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사업소와	어린이대공원	(3~10월)0	9:00~19:00, (11~2월)09:	00~18:00
기타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상이	
	하수도과학관	9:00~	17:00	월, 1월1일, 설, 추석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10:00~18:00	법정공휴일 휴관	월, 1월1일, 설, 추석
	서울상상나라	10:00~18:00		월, 1월1일, 설/추석 연휴, 보수 기간
	서울대공원	(0. 1091)0	9:00~19:00, (11~2월)10:	00 10:00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은 총 19곳으로, 서울시 산하 문화관광시설보다 운영시간이 약 1시간 짧고, 대부분 저녁 6시를 기점으로 관람이 종료되고 있다. 자치구 운영 시설의 대부분은 오전 9시~10 사이에 개관하고 오후 5~6시에 폐관한다. 허준박물관, 겸재 정선박물관 등은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는 1시간 일찍 문을 닫는다.

[표 11] 서울시 자치구 운영 문화관광시설 운영 현황

운영 주체	시설명(소재지)	평일 개관시간	토/일/공휴일 관람시간	휴관일
강동구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09:30~18:00		월, 1월1일
강북구	윤극영 가옥	화요일~토요일 : 10:00~18:00	일요일 : 10:00~17:00	엳
<b>台</b> 五十	근현대사기념관	09:00~18:00		월, 1월1일, 설, 추석, 강북구청이 지정한 날
	허준박물관	(하절기)10:00~18:00 (동절기)10:00~17:00	10:00~17:00	월, 1월1일, 설, 추석
강서구	겸재정선박물관	(하절기)10:00~18:00 (동절기)10:00~17:00	10:00~17:00	월, 1월1일, 설, 추석
	궁산일제땅굴전시관	10:00~16:00	, on m.	열
	갤러리관악	10:00~18:00	500	토.일 및 공휴일
관악구	강감찬 전시관	화~일10:00~18:00 (1~2월)10:00~17:00		월, 1월1일, 설·추석 당일
노원구	화랑대역사관	10:00~18:00		월, 1월1일, 추석, 설 연휴
	노원불빛정원	18:00~22:00		월
도봉구	둘리 뮤지엄	10:00~18:00		월, 1월1일, 설, 추석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3~10월)10:00~18:00 (11~2월)10:00~17:00		월, 1월1일, 설, 추석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3월~11월)09:30~18:00 (12월~2월)09:30~17:30		월, 설, 추석
시네군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3월~10월)09:00~18:00 (11월~2월)09:00~17:00	1시간 연장 개관	월, 1월1일, 설, 추석
	성북구립미술관	10:00~18:00		월, 1월1일, 설, 추석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10:00~18:00		월, 1월1일, 설, 추석
	예송미술관	10:00~18:00		일, 법정 공휴일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09:00~18:00		월, 설, 추석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10:00~18:00		월, 1월1일, 설, 추석

###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 중 민간운영 시설은 무휴관·주말 야간에도 운영

'디스커버서울패스(Discover Seoul Pass)'는 관광객들이 패스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시의 대표적 관광지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 중 하나다. '디스커버서울패스'의 제휴시설은 민간시설 및 서울시 운영시설, 문화재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시설을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휴시설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대부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롯데월드, 63스퀘어, MBC월드, N타워 전망대, 서울동물원 등은 대표적으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디스커버서울패스'(2020년 3월 기준)와 제휴한 시설 중 관광지는 47곳 정도이며, 운영 주체에 따른 무휴관·주말 야간 운영시설들도 있다. '디스커버서울패스'에 포함된 관광지 47곳 중에서 서울시 운영시설은 민간시설과 비교해 무휴관이나 주말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곳이거의 없으며 운영시간도 매우 제한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관광지 5곳 중에서 무휴관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으며, 주말 야간시간대에 운영되는 곳은 3곳 정도이다. 서울시 소재 국립 관광지는 총 8곳이 있지만, 무휴관으로 운영되는 곳은 2곳, 주말 야간에 운영되는 곳은 2곳이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제휴 관광지는 34곳이며, 이 중 무휴관 운영시설은 22곳, 주말 야간 운영시설은 5곳이 있다.

[표 12]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 관광지 관람시간

구분	총계	무휴관	주말야간
국립	8	2	2
서울시	5	0	3
민간	34	22개	5

\*2020년 3월 현재 제휴 업체 중 주요 관광지 47곳 선별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서울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시티투어버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 전후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도보관광프로그램도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관광할 수 있는 예약제 프로그램이지만 연중무휴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무휴관제의 도입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2\_시민생활 변화·뉴노멀에 맞게 관람시간 변화 바람직

### 서울시 문화관광시설의 외국인 관광객 위한 무휴관제 시행은 효과 미미할 듯

해외 관광객은 여행일정이 정해져 있어, 무휴관 운영의 수요가 일부 있지만 크지 않을 수 있다. 일부 크루즈 여행객은 도시를 이동하기 때문에 휴관일과 방문 일정이 겹치는 것에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문화관광시설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면, 이용객들이 유사 시설을 분산 방문할 수 있어 시설별 이용객은 줄 수 있으며, 주·월·연 총 이용객 수 증가는 미미할 수도 있다. 동물원, 대공원 등 관람객이 많은 시설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휴일 방문객들이 많아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관광목적의 성격이 큰 시설이나 프로그램 역시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운영시간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주는 추세다.

서울 관광활성화의 중요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별 이동객 흐름이나 특성을 반영하여 관광안내소의 운영시간을 동대문은 야간 시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용객이 없는 곳은 부스 형태를 없애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확대하기도 했다. 관람객의 흐름 변화를 따르고 이용의 편의를 확대하여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더크다면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연중무휴 등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을 방문하는 FIT(개별 관광객)의 비중이 높지만, 단체 관광객의 시장 규모는 여전히 적지 않다. 관람시간 연장(야간개장)과 무휴관은 아직은 여행사의 상품 구성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주요 관광시설들은 이미 관광객들의 패턴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문화시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월요일 혹은 화요일) 문을 닫는 휴관일은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된 관행이므로 여행사와 가이드들은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여행일정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연중무휴로 운영하거나 야간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해도, 단체 관광객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관람시설은주로 사람이 적은 오전 시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며, 저녁 시간에 관람시설을 보는 것과같은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날 일정을 위해야간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 단체관광객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수요는 큰 편이 아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방문한 경우 여행일정상 박물관 미술관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내국인 대상의 서울 패키지여행에서 일정의 한계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일이 극히 드문 상황이다. 서울에는 이미 다수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관광시설들이 포진하고 있다. 목적이 뚜렷한 시설은 운영시간이 다소 유연한 곳이 많지만 다수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대표적 관람시설들은 운영시간을 다양화시키고 무휴관제 등을 시행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 '뉴노멀 시민일상에 부합하도록' 서울시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체계 변화 필요

서울시민들의 여가에 관한 관심 증가, 주 52시간, 재택근무제 도입, 유연근무제 확대 등은 휴가분산 정책 및 다양한 시간대의 활용 방안 모색을 유도하고 있다. 일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문화관광시설 운영시간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가와 관광의 환경과 활동 패턴에도 예전과는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3밀(밀폐, 밀접, 밀집)의 위험도에 매우 민감하여 박물관·미술관 등의 실내 관람시설은 물론 실외 공간 에서도 혼잡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예방수칙이 본격적 으로 시행(3월 22일)되어,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광지는 임시 휴관 상태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될 것 같았던 5월 첫 주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수칙이 완화되며 국공립 박물관 과 미술관 등은 사전예약제를 도입하여 관람활동이 재개되기도 하였다. 서울시 산하 박물관 과 미술관 중 일부도 예약제를 시행하여 '서울공공서비스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서울시립미 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무전시관 등의 온라인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예약을 못한 사람 들도 소규모 인원으로 현장 예약을 거쳐 입장이 가능하였다. 관람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시간대별 최대 수용 인원은 20명으로 한정하였다. 이처럼 문화관광시설의 관람활동이 외출 활동을 수반하고, 실내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에 따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시민 사이에서는 여전히 감염 우려가 따르고, 무분 별한 전염확사을 막기 위해 문화관광시설의 운영과 관람활동도 이전과 다른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시설도 시간대별 제한된 인원의 관람 및 방문객 관리 등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다.

#### ◆ 서울시 문화관광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후로 서울시는 2월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임시 휴관 중
-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서울시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기타문 화시설 등 63개 문화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일부 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2시간 내 관람인원을 20명으로 제한
- 시설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으며, 이외에도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방문자 명부 작성 등을 실시





자료: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포털사이트. http://mediahub.seoul.go.kr/

# 04 무휴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시간 확대 가능

# 1\_관람시간 개편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종합적 감안

## 문화시설 관람시간 결정에 유연근무 확대 등 시민 생활여건 변화 반영해야

운영 시간 확대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과 개선으로 시민 대상 서울시 문화관광 시설의 물리적 및 시간적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문화관광 기반시설은 공공재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수익성 및 수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일정부분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무휴관제 시행도 필요하다. 문화 및 관광, 여가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시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이용객들의 변화에 맞추어서 운영시간의 확대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은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휴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가면 열려있는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시간접근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문화와 관광정책의 목적 자체가 수입증대가 아닌 공공재로서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고 한다면 운영자·관리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시민, 이용객, 관람객)'지향적 사고를 통해 관람시간 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관광시설의 이용객 증대와 함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연중무휴와 같은 무휴관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원도나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 공립시설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은 주말에 찾는 방문객이 많아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익성과도 관계가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은 훨씬 더 크고 많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유동 인구나 거주 인구도 더 많아서 관람객을 유치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문화향유 기회 증대라고 한다면 무휴관제를 확대할 경우 혜택을 볼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내부시설의 관리 및 시설물의 교체 등을 위해 지금의 월요일 또는 화요일의 휴관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분적으로 문을 닫고 여는 것도 가능하므로 의사결정자들의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휴관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의 휴관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결정된 이유는 관람객들의 방문 패턴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는 토요일 반나절 일하는 근로 형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동·방문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고려하여 휴관일을 결정했을 것이다. 지금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생기면서 기존의 평일 근무 형태(주중 9시~ 6시까지)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용

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문화와 관광업 종사자들도 전문직이나 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근무시간과 휴일이 유연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시설의 관람시간 운영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 사태에도 관람기회 보장하려면 사전예약제, 휴관일·관람시간 변경해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문화관광시설의 관람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고, 내국인의 방문도 줄었지만, 내국인이 주요 이용객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 밀집에 따른 감염 우려가 있어, 현재 집객이 일어나는 문화관광시설은 임시휴관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인근의 관광 및 상업시설 등도 이용객이 줄어관광시장이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시관람을 원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 관람은 관람객의 만족을 완벽하게 채우기에 한계가 있다.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기한 휴업보다 생활 방역이 잘 준수되면서관람시설의 개관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관광시설의 개관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개관하더라도 이용자인 관람객들의 감염 불안은 여전하다. 따라서 실내 공간에서 관광객의 밀집과 밀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관람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의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시설별로 사전예약제가 시행되면, 기존 운영 시간의 탄력적 운영, 휴관일과 시간연장 도입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운영시간 내에서는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이용객이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시간의 연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설의 운영 주체는 주중 또는 주말 중에 이용객 수요를 바탕으로 시간 연장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말에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휴관일에 예약제만 운영하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전예약제가 서울시 산하의 문화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침체된 관광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대처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무휴관·주말 연장운영 등 관람시간 확대하려면 인력 충원·예산 확대 불가피

무휴관과 야간운영, 주말 연장 운영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 문화관광시설의 인력 충원과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부 시설의 야간개장 및 무휴관을 시행하면서 문체부는 인력 지원과 프로그램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광지의 무휴관제 시행을 위해서도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문화관광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은 해당 시설의 전문인력 자격·채용인원 선정 기준이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인력 확보와 더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늦은 시간까지 운영될 경우 초과 근무 보상이나 교대 근무 등으로 최대 근로시간 의무와 여가 보장도 필요하다. 필요시 보조 인력 도입 방안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고려할 수 있다.

## 인력확대는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성에 초점 ··· 사회서비스원과 협력 모색해야

관람시간 연장을 위해 인력 확대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시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주하는 관리인력과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칫 관리인력 고용은 예산이나 운영 등의 이유로 정규직 형태가 아닌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비정규직 확대 문제로이어질 수도 있다. 인력 확대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안정성 및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비정규 인력의 근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공공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교육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며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중요하다. 일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근로자 고용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장훈, 2019). 시민의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문화관광 시설및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조 인력과의 안배도 필요할 수 있다. 문화관광시설의 적재적소에 필요인력이 배치되고, 안정적으로 고용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내에 관광 분야를 신설하거나 이와 비슷한 제도 등을고려하여 인력의 고용과 관리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사회서비스워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기관임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

# 2\_인력·재정 부담 줄이는 관람시간 확대방법도 기획

### 문화시설 전체 공간에 무휴관 도입이 어렵다면 일부 공간만 무휴관으로 운영

문화관광시설의 유지관리,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해당 시설 전체의 무휴관 도입이어렵다면, 일부 공간만 무휴관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문화관광시설의 관람과방문의 목적이 반드시 시설 내부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기보다 문화향유에 초점을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문 자체의 행위와 일부 공간에 머무르는 행위만으로도 방문객의 문화생활 향유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문화관광시설의 장소성의 유의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핵심공간과 부대공간을 분리하여 개방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부대 공간은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유롭게 시간의 제약 없이 방문을할 수 있도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내 전시와 행사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여가 향유는 가능하다. 운영자 입장에서도 무휴관이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간별 개방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운영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의 가나자와 미술관<sup>3</sup>이나 타이완의 국립고궁박물관이 공간별로 개방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사례이다.

### '이용자 특성·행태 파악해 관람시간 조정 위해' 운영시간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문화관광시설의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해 이용객 특성과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관람시간이나 운영시간이 조정돼야 한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의 차원에서 공공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화시설의 접촉면을 넓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무작정 관람객 수를 확대하기위해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조정하기보다 이용객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용객이 원하는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는 관리·분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휴관제를 비롯한 운영시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시설 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시간(9~17시)은 30여 년 전부터 근로시간 기준에 맞추어진 것으로 서울시가 운영 시간을 재정비하지 않더라도 관리·재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더 나아가 관람객 이용 특성 및 여가 환경 변화 요인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문화관광시설의 연중 개방 시간 조사, 이용객·유동인구 통계자료 수집, 수요조사 등 운영시간의 총량이 관리돼야 한다. 관람시간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

#### 하절기 토요일 아간개장 수요 많으면 주중 근무시간 단축 포함한 탄력적 운영

문화관광시설의 야간개장 일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하절기와 토요일에 수요가 많았다. 이용객 행태를 파악하여 수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시설 이용 수요는 주말 저녁이나 특정 평일 등에 문화활동을 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는 등 다양하기 때문에(장훈, 2019), 4 시설 특성을 파악하여 문화관광시설의 탄력운영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중 1시간 단축 운영하는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에 폐관시간을 4시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 ■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가능 시간대 조사(장훈, 2019)

- 전국 15세 이상의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5일~13일까지 진행
- 응답자의 선호 시간대 조사 결과, 평일은 19~22시, 주말은 14~17시로 조사되었으며, 주말의 17~22시 구간에 이용하려는 수요도 일부 존재
-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방시간 연장을 원하는 선호 시간대는 토요일 저녁(박물관은 30.8%, 미술관은 28.7%)으로 조사, 다음은 특정 평일 선호(박물관 17.3%, 미술관 18.2%)

서울시립미술관 등 서울시의 일부 시설은 야간개장을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시설의 제공 프로그램과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개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립 미술관은 기존의 야간개장 프로그램인 '뮤지엄데이(2014년)'를 '뮤지엄나이트'로 변경(2016년 4월)하여 음악회, 특별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9년까지 운영한 적이 있다. 서울 시립미술관은 실내 전시관람 활동이 많은데, 평일 야간 관람객의 수요가 많지 않아 '뮤지엄데이'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평일 야간의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즉, 야간활동의 취지에 맞는 날씨 관련 계절에 활용하고, 장소가 지닌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야간개장이 고려돼야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의 백인제가옥은 2017년 8월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8시까지야간개장을 시행하였다. 이는 여름철 폭염으로 낮 시간대 관람이 어려운 관광객을 위함이었다.



서울시립미술관 야간개장 '뮤지엄나이트'(2016.4)

백인제가옥 야간개장(2017.8)

자료: 헤럴드경제

자료: 한국건설신문

[그림 9] 서울시 문화관광시설 야간개장 프로그램 사례

### '정기휴관일 분산시키게' 책임운영기관별로 서울시 문화시설 교차휴관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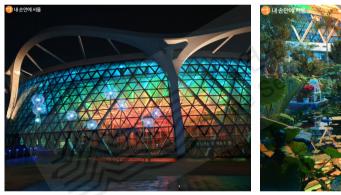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박물관별로 특성이 다르지만 운영 주체가 같은 기관은 인력 조정과 운영시간의 교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공립 문화관광시설의 정기휴관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지만, 대부분 월요일에 몰려있다. 따라서 정기휴관일을 분산시키고, 관람객및 단체여행객들이 대안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교차휴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시 산하문화관광시설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2곳이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하위 시설은 대부분 월요일 휴관제를 유지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2곳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역사를 다루는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하위 박물관 간 관련 인력들의 교차 배치가 가능하므로 무휴관제 및 운영시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시설의 무휴관이 어렵다면 책임운영기관하에 있는 기관들이 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운영할 수도 있다. 서울시립미술관도 미술관 등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어 지역의 문화향유권확대 차원에서 관람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시설 간 인력을 공동 활용하거나 무휴관이 어렵다면 교차로 휴관하여 미술관의 접근성을 개선해 줄 수 있다. 사업소 2곳인 서울공예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시 재량으로 무휴관제 등과 같은 운영시간 확대 적용이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서울시 박물관과 사업소 조직 편제 관계

### 관람시간 확대와 더불어 '관람객 흥미 유발하도록' 기획프로그램도 발굴·운영

무휴관제나 관람시간 확대 등의 시간 접근성 개선이 문화향유 기회를 늘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내부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관람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연계되어야만 한다. 야간개장 시행과 관련하여 계절 적 요인을 고려하고,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서도 전시 관람 및 체험활동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하절기에 야간개장하는 야외 문화시설은 많지만, 실내는 전시 및 관람 시간을 연장하고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더러 있다. 야간개장이 개인의 관람시간을 최적화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새로운 관람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전시공간의 개방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상설 전시 외에 기획전시를 확대하여 재방문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야간개장의 성공 사례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식물원5에서 개최한 '2019 서울식물원 보타닉썸머나이트'행사가 있었다. 2019년에는 특별관람행사 차원에서 여름(8월7일~10일)과 겨울(12월19일~22일)에 야간관람을 일회성으로 진행하였다. 운영시간은 오후 7시 반에서 오후 9시까지 행사를시행하였고, 관람인원은 1일 500명으로 제한하였다. 서울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를 이용해예약 접수를 하였고, 입장권의 온라인구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관람 당일 예약한 관람객 대부분이 참여하였다.





자료: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포털사이트. http://mediahub.seoul.go.kr/

[그림 11] 서울식물원 야간개장 '보타닉썸머나이트'(2019년 8월)

개방시간 연장과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되, 더 나아가 생활예술·아마추어 예술 등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시설만의 방문 증가를 위한 관람 시간의 조정보다 인근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 활동 및 공간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나이트라이프는 박물관, 미술관 방문 후 인근의 민간시설을 방문하는 동선으로 관광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서울시 문화관광시설이 다양한 관람 콘텐츠를 제공하면 관광상품의 품질 향상과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문화교육 향상 차원에서 휴관일에 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예약제로 운영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그 기능이 과거 소장품 중심의 전시 관람에서 교육, 체험, 사회소통 등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휴관일에 전체 관람객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것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시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리 루브르박물관은 과거에 무휴관제를 논의한 바가 있고, 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학생의 문화교육 향상 차원에서 학생 중심의 휴관일 운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의 이용률 제고와 더불어 체험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전시보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휴관일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 류정아·김현경, 2006, 「스마트융합 환경에서의 박물관·미술관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12] 박물관·미술관 기능의 변화

[부록 표 1] 서울 소재 국립문화관람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소재지)	평일 관람시간	공휴일 관람시간	연장(야간)	*휴관일 (1/1,설날,추석 외)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	10:00~18:00	10:00~19:00	수,토 10:00~21:00	무휴관	
국립민속박물관 (종로구)	9:00~18:00	09:00~18:00	금,토, 매주 마지막 수 09:00~21:00	무휴관	6~8월, 주말, 공휴일 ~19: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로구)	10:00~18:00	10:00~18:00	수,토 10:00~21:00	무휴관	·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구)	10:00~18:00	10:00~18:00	토, 매주 마지막 수 10:00~21:00	무휴관	·
국립국악원국악박물관 (서초구)	9:00~18:00	09:00~18:00		월, 1/1	
	10:00~18:00	10:00~18:00		월, 1/1	·
한국영화박물관 (마포구)	9:00~19:00	09:00~18:00	194	월	
 국립고궁박물관 (종로구)	10:00~18:00	10:00~19:00	수,토 10:00~21:00	2020년부터 무휴관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구)	09:00~18:00	09:00~18:00	e 50	월	전시실: 18시 외부전각:19시 역사제국관 해설은 예약제
육군박물관 (노원구)	10:00~17:00	10:00~17:00		월	
- 국토발전전시관 (중구)	09:30~17:30	09:30~17:30		화	
 국립경찰박물관 (종로구)	09:30~17:30	09:30~17:30		월	
국립관세박물관 (강남구)	09:30~18:00	휴관		토, 일	
국회헌정기념관 (영등포구)	09:00~18:00	09:00~13:00		국회개원기념일, 공휴일, 둘째, 넷째 일요일	

[부록 표 2] 지역 소재 국립문화관람시설 운영 현황(서울 제외)

시설명	지역	휴관	운영 시간
국립경주박물관	경북 경주	1월1일, 설날, 추석	10:00~18:00(일요일 및 공휴일 1시간 연장) 10:00~21:00(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3월~12월 매주 토요일)
국립공주박물관	충남 공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10:00~18:00 / 토, 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9:00까지 매주 토요일(4월~10월) / 야간개장 10:00~21:00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1월1일, 설날, 추석	평일 10: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10:00~19:00 (3월~10월) 매주 토요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10:00~18:00 토,일,공휴일 19:00까지 4~10월 토요일 21:00까지
국립나주박물관	전남 나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화~금요일 10:00~18:00 토,일,공휴일 10:00~19:00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경북 상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전일 및 당일, 자원관 설립일(6.3.)	09:30~17:30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평일 10:00~18:00 / 주말 및 공휴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 10:00~21:00
국립등대박물관	경북 포항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09:00~18:00
국립부여박물관	충남 부여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10: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매주 토요일(4월~10월, 09:00~21:00)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09:00~21:00
국립산악박물관	강원 속초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3~9월) 09:00~18:00 (10~2월) 09:00~17:00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전남 고흥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회~일요일 09:30~16:30
국립여성사전시관	경기 고양	일요일, 공휴일 및 설·추석연휴 휴관	09:00~18:00
국립익산박물관	전북 익산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09:00~18:00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부산 남구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10:00~18:00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전주	1월1일, 설날, 추석날	10:00~18:00(토,일,공휴일 1시간 연장) 3~10월 매주 토요일 야간개장(21:00까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09:00~18:00
국립조세박물관	세종	월요일, 법정 공휴일	09:00~18:00

시설명	지역	휴관	운영 시간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09:30~17:50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월요일, 1월1일,	10:00~18:00/ 주말, 공휴일 1시간 연장
	진주	설날, 추석	4~10월 매주 토요일 21:00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9:00~18:00
국립춘천박물관	강원	월요일, 1월1일,	평일 10:00~18:00 / 주말, 공휴일 10:00~19:00
	춘천	설날, 추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국립태권도박물관	전북	월요일, 1월1일,	(3~10월)화~금 10:00~18:00/주말, 공휴일 10:00~19:00
	무주	설날, 추석	(11~2월)화~금10:00~19:00/주말, 공휴일 10:00~18:00
국립해양문화재	전남	월요일	09:00~18:00
연구소	목포		(3~10월 중 주말 및 공휴일 19:00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평일,일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21:00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시큐리움	충남 서천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3~10월) 09:30~18:00/ (11~2월) 09:30~17:00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1시간 연장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경기	월요일, 1월1일,	(3월~10월) 10:00~18:00, 토요일 10:00~21:00
(과천관)	과천	설날, 추석	(11월~2월) 10:00~17:00, 토요일 10:00~21:00
국립현대미술관	충북	월요일, 1월1일,	화~일요일 10:00~18:00
(청주관)	청주	설날, 추석	
산림청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경기 포천	일요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연휴	(4~10월) 09:00~18:00 (11~03월) 09:00~17:00
세종대왕	경기	월요일	(2~5월, 9~10월) 09:00~18:00
역사문화관	여주		(6~8월) 09:00~18:30/(11~1월) 09:00~17:30
우정박물관	충남 천안	일요일, 공휴일, 설·추석 연휴	09:00~18:00

[부록 표 3] 디스커버서울패스 제휴 관광지 운영 현황

시설명	위치	운영시간	휴관 여부
창덕궁	종로구 와룡동	(2~5월) 09:00~18:00 (6~8월) 09:00~18:30 (9~10월) 09:00~18:00 (11~1월) 09:00~17:30	월요일 휴관
창경궁	종로구 와룡동	09:00~21:00	월요일 휴관
덕수궁	중구 정동	09:00~21:00	월요일 휴관
경복궁	종로구 세종로	(1~2월) 09:00~17:00 (3~5월) 09:00~18:00 (6~8월) 09:00~18:30 (9~10월) 09:00~18:00 (11~12월) 09:00~17:00	화요일 휴관
종묘	종로구 훈정동	(2~5월, 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화요일 휴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 현저동	(3~11월) 09:30~18:00 (12~2월) 09:30~17:30	월요일 휴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 용산동	월,화,목,금 10:00~18:00 수,토18:00~21:00 (3시간 연장) 일요일,공휴일 10:00~19:00	연중무휴 (1월1일, 설, 추석휴관 상설전시실 정기휴실일: 매년4, 11월 첫째 월요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종로구 소격동	화,목,일 10:00~18:00 금,토 10:00~21:00	연중무휴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휴관)
남산골 한옥마을	중구 필동	09:00~21:00	월요일 휴관
라뜰리에	중구 을지로6가	10:00~21:00	연중무휴
뮤지엄 김치간	종로구 인사동	10:00~18:00	월요일 휴관
삼성미술관 리움	용산구 한남동	10:30~18:00	월요일 휴관
서울함 공원	마포구 망원동	(3~10월) 평일 10:00~19:00 주말 10:00~20:00 (11~2월) 평일 10:00~17:00 주말 10:00~18:00	월요일 휴관
스타티스 뮤지엄	마포구 서교동	11:00~19:50	연중무휴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강남구 신사동	화~토 10:00~19:00 일요일 11:00~19:00	월요일 휴관
짚풀 생활사 박물관	종로구 명륜2가	10:00~17:00	월요일 휴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강남구 신사동	(4~10월) 10:00~19:00 (11~3월) 10:00~18:00	일요일 휴관
한복남	종로구 소격동 (북촌한옥마을)	09:00~19:00	연중무휴
63스퀘어(63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	10:00~22:00	연중무휴
MBC월드	마포구 상암동	10:00~18:00	연중무휴
N서울타워(전망대)	용산구 용산동2가	월~금,일 10:00~23:00 토요일 10:00~24:00	연중무휴

시설명	위치	운영시간	휴관 여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중구 회현동2가	10:00~18:00	월요일 휴관
SMTOWN MUSEUM	강남구 삼성동	13:00~19:50	월요일 휴관
남산서울타워 한복문화체험관	용산구 용산동2가	10:00~19:00	연중무휴
런닝맨 Ep1. 보물을 찾아라	종로구 인사동	10:00~20:00	연중무휴
롯데월드 어드벤처	송파구 잠실동	평일 09:30~22:00 금,토,일 09:30~23:00	연중무휴
박물관은 살아있다	종로구 인사동	09:00~20:00	연중무휴
서울동물원 & 스카이리프트	경기 과천시	(3~10월) 09:00~19:00 (11~2월) 09:00~18:00	연중무휴
씨랄라	영등포구 문래동	워터파크 10:00~19:00 찜질스파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이랜드 크루즈	영등포구 여의도동	11:00~21:00	연중무휴
코엑스 아쿠아리움	강남구 삼성동	10:00~21:00	선중무휴
트릭아이 뮤지엄	마포구 서교동	09:00~21:00	연중무휴
풋볼 팬타지움	마포구 성산동	09:00~18:00	연중무휴
피규어뮤지엄W	강남구 청담동	11:00~19:00	월요일 휴관
그레뱅 코리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09:30~19:00	연중무휴
테지움 서울	종로구 창신동	08:30~19:00	연중무휴
놀이똥산	종로구 공평동	10:00~20:00	연중무휴
다이나믹메이즈	종로구 인사동	09:00~20:00	연중무휴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송파구 신천동	일~목 11:00~21:00 금,토 11:00~22:00	연중무휴
리얼케이팝댄스	마포구 서교동	10:00~21:00	사전 예약
서울랜드	경기 과천시	10:00~21:00 (토요일 10:00~22:00)	연중무휴
아이러브한식	마포구 연남동	10:00~21:00	일요일 휴관
킹 스튜디오	강남구 신사동	사전예약	사전예약
국립국악원	서초구 서초동	국립박물관 10:00~18:00	월요일 휴관
금박연	종로구 계동	평일 10:00~17:00 토요일 09:00~15:00	수요일, 일요일 휴관

The Seoul I

무휴관·교차휴관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 문화관광시설 관람시간 확대 필요

서울연 2020-OR-14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7월 15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515-4 93320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